

북

Books

삶의 갈림길서 ‘오래된 지도’를 꺼내들다

(유년시절 읽은 책)

모두가 유년 시절 혹은 청년 시절 자신의 머리와 마음을 강타했던, 온몸을 전율시켰던 책에 대한 기억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청춘의 뜨거움과 푸름을 담았던 책을 기억하고 있는가?

유력 정치인에서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씨(50)와 재일 조선인 출신으로 도쿄대 교수인 강상중씨(59)가 각각 내놓은 ‘청춘의 독서’와 ‘청춘을 읽는다’는 공교롭게 겹친 출간시기와 헛갈릴 정도로 유사한 제목 외에도 닮은 점이 많다.

두 책 모두 그들의 청춘을 뜯어모아 달구었던 책들을 중년을 넘긴 나이에 꺼내들어 회고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그 책들이 저자들의 사유를 넓히고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역동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청춘의 독서’는 유 전 장관의 독서 권력기다. “세상이 두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길을 물었다”는 유씨는 그가 청춘의 시절에 품었던 의문들, 그리고 지금의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질문에 ‘세상을 바꾼 한 권의 책’으로 답한다.

유씨가 언급하는 책들의 주제는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뒤집고, 시대를 흔들었다. 위험하고 위대한 책들이다.

치열한 입학경쟁을 끝고 입학했으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던 대학생 때 ‘동족법학회’라는 일종의 지하서클에서 읽은 리영희(80)의 ‘전환시대의 논리’, 시국사건에 휘말려 수감 중이 아니었다면 읽기 힘들었을 ‘맹자’와 같은 고전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이 포함돼 있다.

또 논산 훈련소에서 경험한, 자신이 한갓 나약한 육체를 가진 동물에 지나지



유시민

청춘의 독서

유시민 지음



청춘을 읽는다

강상중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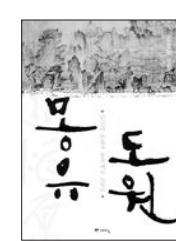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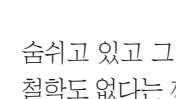


강상중

않는다는 깨달음을 다시 상기시킨 ‘이반 대니소비치의 하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직전에 읽은 ‘카터나니 블룸의 잃어버린 땅’ 등도 이어온다.

이와 함께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심정으로 또 꺼내든 ‘죄와 벌’, ‘진화론’, ‘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통해 젊음이라는 거만함으로 무시했던 삶의 다양한 결들과 세상의 복잡함을 발견해낸다.

‘청춘을 읽는다’는 재일 조선인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예고됐던 깊은 방향과 질곡을 10대 후반에서 부터 20대 후반까지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가 진중하게 써내려간 독서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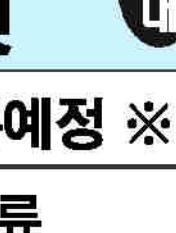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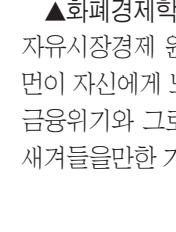
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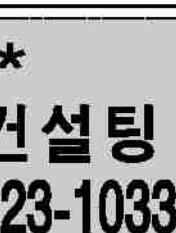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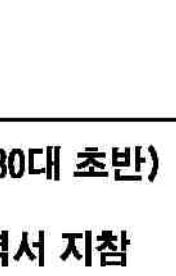
해준다.



작품이다.



작품이다.



▲ 사랑이 떠나가면=2006년 발간돼 10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네덜란드 출판의 책에 선정된 레이 클룬의 자전적 소설. 평범한 삶을 살아온 한 가정에 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고 믿었던 삼십 대 부부의 일상은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 앞에서 치열하게 펼쳐진다.

〈그책·1만3천원〉

▲ 동양 철학 스케치 1, 2=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김선희씨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이끈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썼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의 삶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되새기며 안내하는 여성 속에는 한국·중국·인도 일본을 넘나드는 사상들이 숨쉬고 있고 그 숨결 속에는 시대와 분리된 고민도, 사람과 떨어진 철학도 없다는 깨달음을 준다.

〈풀빛·각권 1만2천원〉

▲ 몽유도원=‘몽유도원’을 남긴 안경과 노비 출신의 풍수(風水) 목효지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 우연한 기회에 만나 친구가 되지만 각각 예술과 신분상승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안경과 목효지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과 꿈의 의미를 돌아본다. 소설집 ‘굿바이!명왕성’과 장편소설 ‘달팽이의 뿔’ 등을 펴낸 정경현씨

〈예담·1만2천원 800원〉

▲ 길 위에서 읽는 삼국지 기행=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삼국지’,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덧입힌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웅들의 발자취를 확인했다. 인하대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허우범씨가 지난 2002년부터 7년간 중국 56개 지역을 누비며 기록한 현장답사기다. ‘삼국지’를 읽는 또 다른 맛을 선사해 준다.

〈책문·1만9천800원〉

▲ 멋진 신세계와 판도라의 상자=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세대 교수들의 모임인 ‘연세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포럼’ 회원들이 2008년에 시작한 연세대 강좌 ‘과학기술과 사회’ 강의 내용을 정리해 엮었다. 생명과학, 기후변화, 정보기술 등 여러 과학 분야를 간략히 설명하고 각 분야별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덧붙였다.

〈문학과지성사·1만1천원〉

CNN 토크쇼 진행자

래리 킹 삶의 모든 것



세계적으로 유명한 CNN의 시사 토크쇼 ‘래리 킹 라이브’의 진행자 래리 킹. 그가 스스로를 인터뷰하는 형식의 자서전 ‘래리 킹, 원더풀 라이브’를 펴냈다.

책에서 래리 킹은 대공황시기 브루클린에서 보낸 초라한 유년 기에서부터 CNN ‘래리 킹 라이브’ 진행자로서의 명성을 누리게 된 시기에 이르기까지 질곡의 삶을 풀어놓았다.

또 방송 진행자로 만났던 수많은 인물과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들, 이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도 함께 담았다. 〈청년정신·1만5천원〉 /김대경 bigkim@kwangju.co.kr

꽃의 연원

이미란 지음



中서 비밀리 선교활동하는 지하교회 다뤄

꽃의 연원

이미란 지음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역사의 굴곡을 거쳐온 사람들에게는 유사한 ‘역사적 상처’가 남는다.

단편소설 ‘꽃의 연원’으로 지난해 ‘제4회 광주일보문학상’을 수상한 이미란(50) 전 남대 교수는 그동안 발표한 단편소설을 묶어 ‘꽃의 연원’을 펴냈다.

표제작 ‘꽃의 연원’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비밀리에 선교활동을 펼치는 지하교회를 소재로 유사한 상처를 지닌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소통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이웃집 여자는 중국 문화혁명 과정에 아버지와 해어진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고 있고, 교수는 광주민 주화운동을 거치며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인물이다.

이들은 비슷한 상처가 되풀이되는 ‘역사의 데자뷔’를 공유하며,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는다.

‘너를 찾다’는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 가상세계에 집착하는 등장인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짚었다.

또 ‘소리소다컵’은 직장에서의 누명을 벗기 위해 과거에 자신이 던졌던 말을 쓰는 주인공을 등장시킨다. 소리를 모아 두는 기술이 개발돼 주인공은 과거 자신이 한 말을 찾지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함께 들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지난 1983년 단편소설 ‘분신’으로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 교수는 1994년까지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전남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잠시 교직을 떠났다가 현재는 전남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충남대학교출판부·1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미란 지음

꽃의 연원

이미란 지음